

무엇이 자돈설사를 일으키는가?(II)

<10월호 155쪽에서 계속>

4. 사양관리 및 생리적 불균형으로 인한 설사

사양관리나 환경이 불량한 경우 자돈의 방어능력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정상 세균총의 불균형을 초래해 자돈은 설사를 하게 된다.

(1) 모유

포유자돈에게는 모유가 단순히 영양 공급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 자돈에게 주어지는 이행 항체(면역 글로브린)원이므로 자돈 발육 및 설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면역 글로브린은 면역에 관여하는 단백질 물리·화학적 성상에 따라 IgG, IgM, IgA, IgE, IgD로 분류되며 주로 전신 면역 작용을 하는 IgG와 소화기나 호흡기관의 점막에 부착하여 국소 면역 작용을 하는 IgA가 특히 중요하다.

새끼돼지가 모돈의 태내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이나 출산에 의해 산도나 외부의 세균이 장

관속으로 침입하여 여러곳에 붙어 세균이 증식하게 된다. 태어나 하루가 지나면 장관속은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유산균 등이 무리를 지어 장내에 번식하는데 이것을 장내 세균총이라고 한다. 장내 세균총은 3~4일이면 유산균이 우세하게 되어 비타민을 만들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용한 균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유를 충분히 공급 받지 못하면 유산균의 세력이 약화되고 대장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번식이 용이하게 되며 이것들이 이상 번식상태가 되면 자돈이 설사를 하게 된다.

(2) 사료 및 환경

입식 사료는 대개 7~10일경 급여하게 되는데 소화하기 어려운 가루사료 급여시 유즙과 달라 pH와 단백질의 차이가 있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단백질 자체도 종류가 다른 동물의 것이므로 생체에 이종 항원으로 받아들여 알레르기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급변하는 사료 변경시 이러한 요인



이 원 형 차장
(한국사이나미드(주))

으로 장내 정상 세균총의 이상 증식 내지는 변화로 설사가 발병하기도 한다.

소화관 이외의 질병, 사료변경이나 부패, 사료첨가제의 변동, 온도 및 습도의 급격한 변화나 환기, 채광, 소음 등 외부환경인자도 장내 미생물의 이상을 초래하며 장관내 유해물질이

생성되면 장연동, 분비 등을 촉진해 설사 발생이 쉬운 상태가 된다. 이때 외부로부터 병원 미생물이 침입하면 바로 설사를 하게 된다.

포유자돈의 생활공간이 지저분 하거나 건치 및 꼬리 절단시 기구가 지저분하면 그만큼 세균에 감염될 기회가 증가하게

되어 설사 발생이 용이하게 된다.

(3) 철 결핍성 설사

자돈은 생후 10일령 이후에는 생리적으로 철분이 결핍되어 빈혈 및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실험**

유해가스

↓

감 지 부

- 첨단 반도체 감지소자
- 0,000~10,000P.P.M
- 반영구적 수명

자동감지 자동환기 시스템

DOLPIN-Q503

유해가스 감지 제어기

조정부

- 안전치 자유설정

수신부

- 감지정보분석
- 가스농도 표시
- 안전치 이상일때 제어부로 명령
- 관리자에 경보

제어부

- 유해가스 배출기기에 작동명령

제어기기

- 환풍기 작동
- 원치커튼 개방
- 각종기기 작동

과 적

- 초기상태로 복귀
- 준비단계

특장점

1. 유해가스 발생 모든 돈사에 설치가능	4. 유해가스로 인한 발육저하 예방
2. 유해가스로 인한 각종 호흡기질환 예방	5. 유해가스의 배출관리의 효율성-열손실방지
3. 유해가스의 농도 확인가능	6. 유해가스로 인한 노동력절감

자료우송 및 문의
기타 자동화 상담

서진기업 자동화 사업부

SEOJIN GI EUP CO. LTD

대전직할시 대덕구 비래동 121-9(흥진 B/D 205)

대표전화 (042) 631-6362